

기능우수인력 중기 취업지원

전북도-경진원,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대상 실시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기능경기대회' 입상 우수인력에 대한 취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기능우수인력 도내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은 청년 취업자의 안정적인 직장생활 정착을 위해 기획되었다. 중소기업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도내 우수 기능·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취업성공 인센티브를 월별 최대 60만원까지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도내 청년층뿐만 아니라 타 시·도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중소기업 취업 시 취업성공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 우수인력 확보에 기여하고 전라북도 취업을 향상에 선

봉장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12월까지 대상자를 수시모집한다. 향후 도내 우수인력과 강소기업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우수인력 확보와 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일자리창출 효과 향상을 기대할 예정이다.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 또는 전라북도 일자리종합센터(www.1577-0365.or.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2019 쾰른 국제식품박람회(ANUGA)'에 참가해 한국 농식품을 홍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발효·비건·유기농'으로 유럽 주류시장 진입

aT, 독일 쾰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김치·오미자 등 인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린 '2019 쾰른 국제식품박람회(ANUGA)'에 참가해 한국 농식품을 홍보했다고 11일 밝혔다. aT는 최근 EU시장의 농식품 트렌드인 '유기농·비건·무첨가제'와 '전통발효식품'을 테마로 한 통합한 국관을 구성하여 총 68개 수출업체와 함께 유럽시장 공략에 나섰다.

한국의 대표발효식품으로 높은 인지도와 높은 '김치'를 중심으로 건조 원물간식의 대표격인 '동결과일칩', 독특한 맛의 '오미자음료', 건강간식 '김스낵', 에스니푸드 열풍에 힘입은 '비빔밥' 등이 바이어들의 호평을 얻으며 총 805만 달러의 현장계약을 체결했다. 한국관을 찾은 네덜란드의 한 수입사는 "유럽 내에서 중식, 일식, 베트남 식품 등 기존 식품과는 다른 이국

적인 느낌의 에스니푸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식품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한국식품을 현지시장에 적극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농식품의 대EU 수출은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에 있다. 특히, 새송이버섯(1000만 달러, 26.1%), 김치(700만 달러, 17.8%), 라면(32백만 달러, 전년 대비 29% 증가)이 두 자리수 성장세를 보이며 유럽 시장내 한국 농식품의 수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에 각종 혜택이

정부, 자금·세제·규제완화 등 패키지로 지원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부문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원활히 협력할 수 있도록 자금, 세제, 규제 완화 등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업 간 협력 방안'에 포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협력 모델이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모든 유형의 기업 간 협력을 의미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에 넘어 연구개발 등이 보유한 기초·원천 연구·개발(R&D) 기술과 첨단 인력·인프라 연구 지원을 활용한 협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수요기업(대기업)과 공급기업(중소기업) 간 수직적 협력 모델은 '협동 R&D형'(기술 로드맵 공유 등)과 '공급망 연계형'(양산평가시험 개방 공동 기반 구축 등)으로 구분한다. 수요기업 간 협력은 '공동 투자형'(공동 개발 및 시설투자), '공동 재고화보형'(공동 구매·보관) 등으로 나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업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형태는 '대·중·소 상생 모델'로 특별 관리한다. 이날 출범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산하에 실무추진단을 둔다. 25개 핵심 전략 품목과 관련된 R&D, 실증, 양산평가 등 분야에서 21개 사례를 발굴해 지원 중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720억원 규모로 담겨 있다. 지난달까지 76.7%가 집행된 상태다. 내년 예산안에는 100+α 핵심 전략 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8866억원

이 짜였다. 수요·공급 기업이 추진단에 역으로 협력 모델을 제안할 수도 있다. '경쟁력 강화 계획서'를 마련해 접수하고 협력 모델에 제공되는 예산, 정책 자금, 규제 완화 등 지원 사안에 대해 건의 사항을 요청하면 된다. 대·중·소 상생협회를 통한 공동모도 진행된다. 대기업이 제시하는 품목을 과제로 제출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식이다. 올해 추경에 이미 217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140개 기술 혁신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공고를 진행 중이다. 올해는 1186억원을 들여 민·관 공동 R&D(중소기업 R&D 수요에 대해 대기업·정부가 50대 50으로 지원), 구매 연계 R&D(대기업의 수요 품목 구매 확약을 조건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개발 지원) 등 사업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선정된 모델에는 자금, 세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를 '메뉴판' 식으로 마련해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R&D 사업에 우선 지원된다. 올해 정부는 100대 핵심 전략 부품 관련 R&D 사업에 1조48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수요기업과 연계한 R&D에 7032억원, 신뢰성 및 테스트 베드(Test-bed) 구축 등에 1834억원, 중소기업 R&D에 1186억원, 기초·원천 기술 상용화 연계 강화에 428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발굴된 협력 사례에는 기술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도 우선 제공한다. R&D 사업과 연계해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특허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공공연구기관이 보유 중인 소재·부품·장비 관련 주요 핵심 특허도 우선 이전한다. 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 인력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에는 이공계 학·석·박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 동력·원천 기술 R&D 및 시설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수요를 추가한다.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R&D·설비투자 목적으로 공동 출자할 때 법인세를 출자금의 5% 규모로 깎아준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금에 출연하면 그 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을 인수할 때도 인수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공제한다. 세율은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이다. 신성장기반자금 융자 등은 협력에 참여한 중소기업에 우선 제공하고 건별 한도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린다. 협력 기업 간 공동 인수·합병(M&A)이 진행될 때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이 참여하는 공동 지원 협의회를 통해 인수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대기업 등과 매칭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모태 펀드 내에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안에는 600억원이 반영돼 있다. /뉴스1

'사랑에 보답'

전북 MG 새마을금고
오늘 전북대서 음악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 본부는 15일(화) 오후 6시에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서 MG 새마을금고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음악회는 지역사회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그간 새마을금고에 주신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고 새마을금고 회원 및 전북도민에게 잠시 일상을 벗어난 즐거움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뮤지컬 갈라쇼를 시작으로 소찬휘, 송대관, V.O.S, 요요미, 장윤정 등 다양한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더불어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연주와 불꽃쇼가 피날레로 펼쳐져 가을 밤하늘을 화려한 불꽃들로 수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음악회는 무료입장이며, 5천만원 상당의 경품추첨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근처 새마을금고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농협은 햇수삼 출하시기를 맞아 11월 30일까지 '2019년 대한민국 인삼직거래행사'를 개최한다.

몸에 좋은 우리 인삼 구입 '절호의 기회'

농협, 인삼직거래행사 개최

내달 말까지 하나로마트 등서

농협(회장 김병원)은 햇수삼 출하시기를 맞아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1일 간 '2019년 대한민국 인삼직거래행사'를 열고, 전국 11개 인삼농협이 엄선해 출하한 햇수삼을 시중보다 10~15% 할인 판매한다. 17일부터 23일에는 전국 이마트 160개 매장에서, 11월 중에는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100개 매장에서 각각 직거래행사가 진행

된다. 또한, TV 공영홍소광은 지난 11일에 이어 15일 방송을 통해 지역별 수삼의 특징, 인삼요리 레시피 등을 소개하고 튀김·샐러드용, 삼계탕용, 홍삼제조용 등 맞춤형 수삼상품을 선보인다. 농협은 10월 말까지 농협인삼 홈페이지(insam.nonghyup.com)를 통해 인삼체험 온라인 공모전도 진행할 계획이다. 농협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우리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미래고객인 어린이부터 20~30대 젊은 고객까지 더 많은 소비자가 인삼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인삼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매월 두번째 금요일마다 출발임박 특가 이벤트

이스타항공, '이스타이밍' 진행

이스타항공이 지난 11일 오전 10시부터 17일까지 매월 두 번째 금요일마다 고정 진행되는 출발임박 특가 이벤트 '지금 이스타이밍' 이벤트를 진행했다.

매달 이벤트를 통해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탑승 가능한 23개 국제선에 대한 특가인quiry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특가 이벤트에는 10월 신규 취항 노선인 정저우, 마카오, 화롄, 가오슝이 포함되며, 편도총액운임 기준 최저가 ▲인천-정저우 7만4200원 ▲인천-마카오 6만5400원 ▲인천-화롄 7만5200원 ▲인천-가오슝 7만5200원부터 항공권 예매가 가능하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11월 신규취항 노선인 부산-타

이베이, 부산-화롄 신규취항 스케줄을 오픈했다. 부산-타이베이는 11월 7일부터, 부산-화롄은 11월 10일부터 각각 첫 운항에 나선다. 부산-타이베이는 주 6회(월·화·수·목·금·토)운항하며 부산-화롄은 주 1회(일) 운항한다. 타이베이와 화롄은 기차로 약 2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해 타이베이와 화롄을 연결한 다구간 여정 계획도 가능하다. 또한 이스타항공의 다른 대만노선인 김포-송산, 인천-타이베이, 청주-타이베이, 제주-타이베이 등과 함께 10월 신규 취항하는 인천-화롄, 인천-가오슝 노선과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starjet.com) 및 모바일에서 확인 및 예매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지난 11일 새만금개발청과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 개발사업에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에 지역업체 참여해야"

전건협 전북도회, 개발청과 전문건설업계 활성화 방안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가 새만금개발청 김일환 차장과 간담회를 통해, 새만금 개발사업에 지역업체가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의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1일 새만금개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문건설업계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태경 회장은, "발주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형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에 전라북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절실하다"며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더불어,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이원규 건설정책본부장은 "건설공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와 국가개발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새만금개발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 김일환 차장은,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만금 개발사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